

##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감과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정도의 조절 효과

진민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그리고 장애수용과 우울증이 어떻게 삶의 만족도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삶 패널 데이터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의 장애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유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과거에 우울증을 앓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유무와 심리적인 요인들인 자아존중감, 장애수용, 우울감 정도의 관계를 조절하여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절 변수들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정책적,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장애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심리적 장애수용

## I. 서론

인간의 대부분은 행복을 추구하며,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과 자기개발 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속에서 국가는 복지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특히 아직까지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의 유무는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추정 장애인구는 2000년 약 134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267만명으로 나타나 지난 17년간 133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성희·이민경·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장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 2020)

2023년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641,896명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자폐)비율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구의 약 5.1%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불평등속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직업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직업은 인간 개인에게 사회적인 소속감과 생계를 지켜주는 수단 이면서 그리고 자아실현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다.(김석건, 고정훈, 2021).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일자리정책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장애인들 개인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의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 실업률은 3.8%로 나타났으며 2022년 하반기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0.6%p, 고용률이 0.3%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전체 인구와 장애인 사이의 고용률 격차는 2022년 하반기 28.4%p에서 2023년 29.3%p로 증가했다. 장애인과 전체 인구 사이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역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격차는 감소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그러나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함에 따라 임금 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변화는 아니다. 장애인삶 패널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5.71점, 2019년 6.11점, 2020년 6.13점, 2021년 6.32점으로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정이다.(김미경, 고정훈, 2021).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요인을 찾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내적요인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체기능 장애인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인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최지현, 홍서진, 차태현, 황호성, 2023). 사회적지지가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노성향, 2022). 자존감과 우울(김영미, 2020)등 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내적 요인 중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내적 요인은 장애수용이다. 장애 수용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밝혀진 바 있다. 장애의 수용은, 장애로 인한 인생의 허탈감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김선주, 염동문, 2013). 따라서 장애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내적 변수중 하나는 개인적인 내적 요인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고민석, 김동주, 2014.)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며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능력과 자긍심에 대한 중요한 가치 판단이다.(김자영, 한창근, 2016). 또한, 장애인들의 성별 차별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증명 했으며, 자아존중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유무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경제활동 유무와 장애 수용, 우울, 자아 존중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2.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3.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우울증을 극복했으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연구 문제4.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소개 및 수집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유무가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삶패널조사」 3개년(2018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삶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후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개인·가족·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체계적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또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유무,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 32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한 등록장애인으로써 2018년 패널로 구축된 장애인 6,12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변수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로 ‘현재 삶의 만족도\_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삶패널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1~10)으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유무는 ‘일자리 유무’를 활용 하였다. 「장애인삶패널조사」 ‘일자리 유무’가 ‘있음’=1, ‘없음’=2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어, 이를 ‘없음’=2를 ‘0’으로 치환하였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장애수용, 우울, 자아존중감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번째로, 장애수용은 여러항목 가운데 장애수용\_(1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우울은 여러항목 가운데 우울\_(3) ‘상당히 우울했다.’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4점 척도로 ‘극히 드물다’=1, ‘가끔 있었다’=2, ‘종종 있었다.’=3, ‘대부분 그랬다’=4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극히 드물다’=4, ‘가끔 있었다’=3, ‘종종 있었다.’=2, ‘대부분 그랬다’=1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역코딩하였다. 세 번째, 자아존중감은 여러항목 가운데

자아존중감\_(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항상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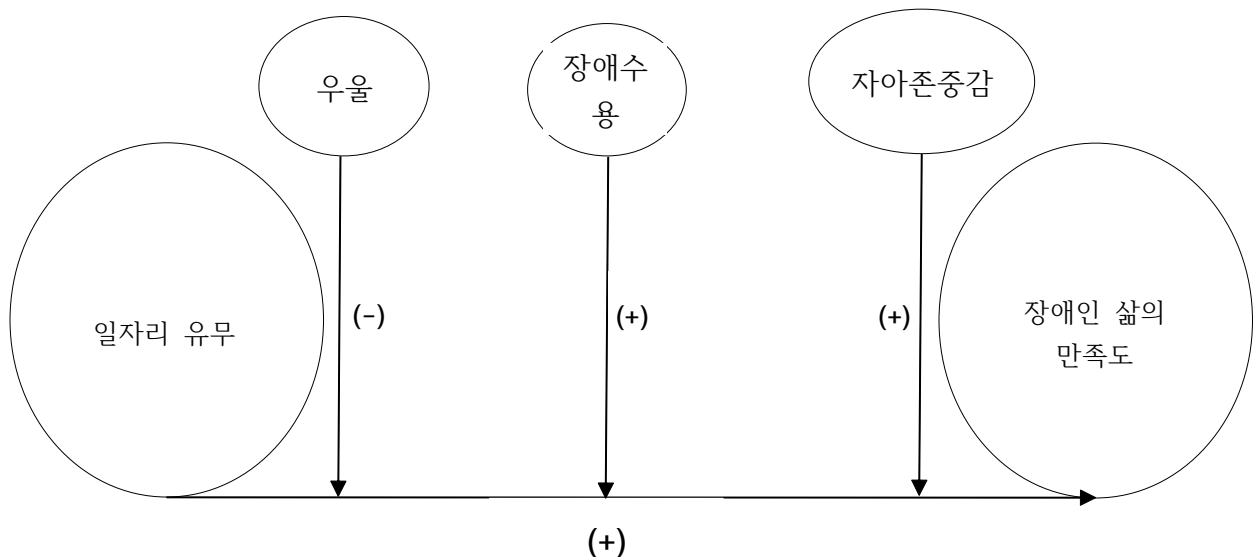
####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인구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연도등이다. 먼저, 인구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여부, 혼인상태, 지역, 전년 대비 건강 상태 등을 투입하였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성인 경우에 1, 여성인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연령별은 20~49세이상인 경우 2, 50세이상인 경우 3, 0~18세인 경우 1(준거변수)로 측정하였다. 셋째, 최종학력 여부는 대학교 이상인 경우 1로, 고졸이하인 경우 0으로 더미화하였다. 넷째,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인 경우 1, 미혼,이혼,별거,사별은 0으로 더미화하였다. 다섯번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인 경우 1, 비수도권인 경우 0으로 더미화하였다. 여섯번째, 전년 대비 건강상태인 경우 ‘매우 안좋아 졌다’=1 과 ‘조금 안좋아 졌다’=2 는 ①‘건강 안 좋음’으로 ‘조금 건강해 졌다’=4, ‘매우 건강해 졌다’=5로 ②‘건강 좋음’으로 변수화 하였고 ‘비슷하다’=3는 준거변수로 측정하였다. 일곱 번째, 중복장애 유형의 경우 중복장애 있음인 경우에 1, 중복장애 없음인 경우에 0으로 더미화하였다. 일곱 번째, 장애 유형의 경우 ①지체장애, ②뇌병변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언어장애, ⑤지적/자폐성장애, ⑥정신장애(준거변수), ⑦내부/안면장애 등으로 측정하였다. 연도의 경우 2018년, 2019년, 2020년 등이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측정	비고
종속변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	1~10점
독립변수	일자리 유무		있음=1, 없음=0	
조절변수	장애수용(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편이다=3 매우 그렇다=4	
	자아존중감(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항상 그렇다=4	
	우울(상당히 우울했다.)		대부분 그랬다=1 종종 있었다=2 가끔 있었다=3 극히 드물다=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0~18세, 19~49세, 50세 이상 (준거변수: 0~18세)	각각 더미화
		최종학력	대졸 이상=1, 고졸이하=0	
		혼인여부	기혼=1, 미혼/이혼/별거/사별=0	
		거주지	수도권=1, 비수도권=0	
		전년도 대비 건강상태	건강 좋음, 변화 없음, 건강 나쁨 (준거변수: 변화 없음)	각각 더미화
	장애특성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음=1, 중복장애 없음=0	
		장애유형	①지체장애, ②뇌병변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언어장애, ⑤지적/자폐성장애, ⑥정신장애, ⑦ 내부/안면장애 (준거변수: ⑥정신장애)	각각 더미화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준거변수: 2021년)	

### 3.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매우 만족’(1~10점)의 순서형 범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자리 유무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이하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였고, 설정된 모형은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y_{it}^* = \alpha + r_{it}\beta + X_{it}\gamma + Z_i\gamma + T_t\delta + \varepsilon_{it} , \varepsilon_{it} = u_i + e_{it}$$

위 식에서  $y_{it}^*$ (삶의 만족도)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매우 불만족이다’가 가장 낮은 값이고 ‘매우 만족한다’가 가장 높은 값으로 10가지 순으로 각 정도의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y_{it}^*$ (삶의 만족도)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leq \delta_1 \\ 2 & \text{if } \delta_1 < y_{it}^* \leq \delta_2 \\ 3 & \text{if } \delta_2 < y_{it}^* \leq \delta_3 \\ 4 & \text{if } \delta_3 < y_{it}^* \leq \delta_4 \\ 5 & \text{if } \delta_4 < y_{it}^* \leq \delta_5 \\ 6 & \text{if } \delta_5 < y_{it}^* \leq \delta_6 \\ 7 & \text{if } \delta_6 < y_{it}^* \leq \delta_7 \\ 8 & \text{if } \delta_7 < y_{it}^* \leq \delta_8 \\ 9 & \text{if } \delta_8 < y_{it}^* \leq \delta_9 \\ 10 & \text{if } \delta_9 < y_{it}^* \end{cases}$$

$r_{it}\beta$ 는 개인  $i$ 의  $t$ 년도 일자리 유무이며,  $r_{it}$ 의 추정계수는 일자리 유무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X_{it}$ 는 시간가변 변수(time-variant variable)로 연령 등이다.  $Z_i$ 는 시간 불변 변수(time-invariant variable)로 성별, 최종학력 등이다.  $T_t$ 는 연도 더미변수의 벡터이고,  $\varepsilon_{it}$ 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 III.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장애의 일자리 유무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 삶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6,121명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 5.0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자리 유무인 경우 평균 0.25로 대부분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는 장애 수용, 우울, 자아존중감이다. 장애수용은 평균 2.19로 장애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47로 주로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고 있으며, 우울은 3.19로 종종 우울감을 느끼는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장애특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성별은 평균 0.54로 장애인들 중 남성의 비중이 더 많았고, 연령은 20세~50세의 평균은 0.28, 50세 이상의 평균은 0.69로 확인 되었다. 최종학력 평균은 0.12으로 확인 되었으며, 결혼 유무 평균은 0.53으로 기혼자가 약간 더 많은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 평균은 0.48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건강상태 좋음 평균 0.08이고, 전년도 대비 건강상태 나쁨은 평균 0.28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 특성을 살펴보면 중복 장애 유형 평균은 0.05로 확인되었으며, 장애 유형은 먼저 지체장애 평균은 0.17, 뇌병변장애 평균은 0.15, 시각장애 평균은 0.13, 청각/언어장애 평균은 0.16, 지적/자폐성 장애는 평균 0.05, 내부/안면 장애는 평균 0.24로 나타났다.

아래 표의 상관분석 결과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일자리 유무는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장애 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모두  $P<0.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20~50세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50세이상 집단의 경우  $P<0.01$ 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도 대학교이상 졸업한 집단의 경우  $P<0.01$ 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건강상태인 경우 과거보다 건강상태 좋음, 과거보다 건강상태 나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보다 건강상태 좋음인 경우 삶의만족도와  $P<0.001$ 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과거보다 건강상태 나쁨인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장애특성의 경우 중복장애 유형인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인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안면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지체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내부/안면장애는 삶의 만족도와  $P<0.001$ 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6,121)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삶의만족도	5.05	1.97																				
2. 일자리 유무	.25	.43	.29																			
3. 자아존중감	2.47	.70	.38	.21																		
4. 장애수용	2.19	.78	.36	.23	.46																	
5. 우울	3.19	.84	.40	.21	.26	.24																
6. 성별더미	.54	.49	.01	.15	.01	.03	.05															
7. 20~49세	.28	.45	.04	.09	.01	.05	.01	.00														
8. 50세이상	.69	.45	-.05	-.08	-.02	-.07	-.02	-.01	-.95													
9. 최종학력더미	.12	.32	.10	.12	.07	.06	.03	.10	.13	-.11												
10. 결혼유무더미	.53	.49	.18	.09	.08	.06	.08	.01	-.22	.26	.07											
11. 주거지더미	.48	.49	-.09	-.01	-.02	-.04	.01	-.04	.00	-.00	.04	-.01										
12. 건강 좋음	.08	.28	.16	.03	.08	.10	.07	.01	.05	-.06	.04	.01	-.01									
13. 건강 나쁨	.28	.45	-.27	.03	-.14	-.16	-.28	-.03	-.11	.12	-.04	-.01	-.02	-.19								
14. 중복장애유형	.05	.23	-.10	-.09	-.11	-.09	-.09	.04	-.00	.00	.01	-.02	.01	-.00	.04							
15. 지체장애	.17	.37	.07	.11	.03	.01	.04	-.01	-.05	.05	-.02	.07	-.00	-.00	.03	-.07						
16. 뇌병변장애	.15	.36	-.17	-.15	-.13	-.16	-.11	-.00	-.05	.05	.01	.03	.00	.01	.03	.06	-.19					
17. 시각장애	.13	.34	.02	.02	.02	.03	.02	-.03	-.02	.02	.04	-.03	-.00	-.04	.01	.01	-.18	.16				
18. 청각/언어장애	.16	.37	.07	.09	.04	.07	.05	.01	-.10	.10	-.01	.07	-.02	-.02	-.03	.03	-.20	-.19	-.17			
19. 지적/자폐성장애	.05	.23	.01	-.00	.00	.02	.04	.01	.22	-.25	-.06	-.17	-.02	.01	-.07	.02	-.11	-.10	-.09	-.11		
20. 내부/안면장애	.24	.43	.01	-.01	.05	.03	.02	.04	.00	.01	.04	.05	.04	.03	.01	-.03	-.26	-.24	-.22	-.25	-.14	

## 2. 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일자리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패널 순서형 로짓모형

아래 표는 장애인 일자리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본모형],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1],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2], [모형 5],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3], [모형 6],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4], [모형 7], 전체 변수를 투입한 [통합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기본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투입하지 않고 통제변수들만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유무(기혼), 최종학력(대졸자 이상), 전년 대비 건강상태(양호)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장애 유형중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내부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반면, 성별더미(남성), 거주지더미(수도권), 전년 대비 건강상태(안 좋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모형 1]을 살펴보면, 일자리 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통제변수를 보면,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결혼유무(기혼), 최종학력(대졸자 이상), 전년 대비 건강상태(양호)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장애 유형중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내부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반면, 성별더미(남성), 거주지더미(수도권), 전년 대비 건강상태(안 좋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기본모형]과 차이점은 성별 더미변수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모형 2]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통제변수의 경우 [기본모형]과 거의 유사하게 결혼유무(기혼), 최종학력(대졸자 이상), 전년 대비 건강상태(양호)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장애 유형중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내부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반면, 거주지더미(수도권), 전년 대비 건강상태(안 좋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모형 5]를 살펴보면, 일자리 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자아 존중감도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모형 3]을 살펴보면, 과거우울증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해당 모형에서 통제변수를 보면, [기본모형]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차이점은 성별더미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0.01$ ). [모형 6]을 살펴보면, 일자리 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우울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따라서 가설 3는 채택되었다.

[모형 4]를 살펴보면, 장애수용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해당 모형에서 통제변수를 보면, [기본모형]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7]을 살펴보면, 일자리 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장애수용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3> 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일자리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패널 순서형  
로짓모형**

변수	기본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통합모형
일자리유무		.93***				.76***	.77***	.76***	.76***
자아존중감			.88 ***			.82***			.54***
장애수용					.72***			.66***	.40***
우울증				.79***			.74***		.62***
성별	-.03	-.15***	-.04 ***	-.10***	-.06***	-.13***	-.19***	-.15***	-.17***
20~49세	-.75***	-.92***	-.71***	-.66***	-.53***	-.85***	-.81***	-.69***	-.65***
50세이상	-.99***	-1.07** *	-.92***	-.89***	-.69***	-1***	-.96***	-.78***	-.76***
최종학력	.48***	.38***	.38***	.47***	.41***	.31***	.39***	.33***	.31***
결혼유무	.73***	.68***	.68***	.69***	.69***	.64***	.65***	.65***	.61***
거주지	-.40***	-.41***	-.38***	-.45***	-.37***	-.39***	-.45***	-.37***	-.41***
과거건강 좋음	.84***	.85***	.76***	.82***	.74***	.78***	.82***	.76***	.73***
과거건강 나쁨	-1***	-.93***	-.88***	-.68***	-.88***	-.83***	-.64***	-.83***	-.57***
중복장애 유무	-.71***	-.57***	-.49***	-.53***	-.56***	-.39***	-.42***	-.45***	-.26***
지체장애	.79***	.55***	.62***	.53***	.71***	.43***	.35***	.53***	.29***
뇌경련장애	-.30***	-.31***	-.31***	-.41***	-.20***	-.32***	-.41***	-.22***	-.34***
시각장애	.68***	.52***	.51***	.42***	.57***	.39***	.30***	.44***	.21***
청각장애	.77***	.55***	.58***	.51***	.62***	.42***	.35***	.46***	.24***
지적장애	.54***	.44***	.41***	.27***	.49***	.33***	.20***	.41***	.15**
내부장애	.51***	.40***	.32***	.29***	.44***	.24***	.22***	.35***	.12**
N	6,121								
Log-like lihood	-36219	-35789	-35240	-35185	-35398	-34960	-34894	-35120	-34077

\*\*\* P<0.01, \*\* P<0.05

#### IV. 결론 및 시사점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육체, 정신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사회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것은 상대적으로 희소할 것이며 소속감으로부터 얻은 행복과 금전적인 안정감 또한 일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희소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도 우울감, 자아존중감, 장애를 수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을 다님으로써, 사회적인 소속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과거 우울증 증세를 덜 보일수록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울증세를 겪은 사람은 심각하게는 자살까지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울증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하며 장애를 극복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수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에서는 장애인들도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일자리정책 및 복지를 실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치료해줄 수 있는 상담가 및 전문가가 필요하다. 선행연구 및 본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심리적인 요인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요인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 재활을 활성화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일반화했기에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추가적인 과제나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로 분류하고 장애유형별로 분류해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 김지민, 이연희, 강동욱, 권선진, 백은령, 윤상용, 이선우. (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진, 고정훈 (2021).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96-808.
- 김미경, 고정훈(2021). 근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46-557.
- 박재국. (2015). 중증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삶의 만족도. 지체 중복 건강 장애연구, 58(1), pp.1-28.
- 김선주, 염동문. (2013).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pp.361-385.
- 김자영, 한창근, “자산 수준과 취업 여부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제26호, 제3권, pp5-30, 2016.
- 고민석, 김동주, “경제 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2호, pp. 137-164, 2014.
- 이지수,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2호, pp.89-114, 2007.

# The Impact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elf-Esteem

min joon jin

##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dditionally, it aims to longitudinally explore how self-esteem,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this, a pan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anel data o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first (2018), second (2019), and third (2020) years of the panel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employment statu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higher self-esteem while working correlates with increased life satisfaction. Similarly, individuals who psychologically accept their disability while employed report higher life satisfaction. Lastly, the study indicates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have not experienced depression in the past exhibit greater life satisfaction while employ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longitudinal verification of factors and control variables that affec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effectively control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 overall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self-esteem, psychological acceptance of disability